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살활의 체용’ 심도있게 논의



《나가목연첩》 추사친필본

燈供養清淨 隨順自在 以此蟹石蟻殼熱惱業較對 不止一界以塵凡而已 震師行錄 即不過殘膏剩腹 然寸寸皆香 固不足以此盡震師 須彌納芥子 震師亦當肯受 前後記?甚好 似無更加點定 又當熟看爛商 再請塵正 二禪殺活等文 固當如是說去 何庸千藤百葛 廓掃近日霧窟?障 善哉善哉 但殺活一體 一用 稍欠商量 殺活俱是用耳 朴雅五濁惡世不易有之善根 最其真實無虛偽者可禪 於書道亦俱慧性 重之精進 欲得向上一竅 有不可禁當耳 留後期而歸 暫申如此 都留不宜 那隻 泥洹抄寄亦領收 此有一大家 今回無以卒之奉及 且在緩圖耳

초의가 《진목대사유적고》를 편찬한 것은 1847년경이다. 추사가 이 책을 교정한 후, “전후기 서문의 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정정할 것이 없을 듯”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대략 1846년 6월 12일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추사는 초의와 살활의 체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이는 추사가 “이선(二禪)의 살활(殺活) 등은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초의의 《선문사변만어》저술 과정에서 자신의 선리의 관점을 끊임없이 추사와 탁마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추사에게 차를 만들어 보냈던 인물로, 이들의 소식을 전달했던 박아에 대한 “서도에 지혜를 가진 인물인데도 거들 정진했다”는 추사의 평가는 박아의 인품과 학문적 취향을 밝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언어 보낸 초의의 편지는 적막한 추사의 저거지를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럽게 떨어진 것처럼 어디든지 환희의 인연이 자자”하게 하였다. 공양이 청정하여 가는 곳마다 자재한 초의의 수행처와 자신의 거처를 “게 굴이나 우렁이 사는 집의 열녀업”에 비유한 추사의 해학이 돋보인다. 특히 초의는 《진목대사유적고》의 편찬 과정에서 마지막 퇴고를 추사에게 보내 그의 조언을 구했음이 확인된다. 《완당전집》(여초의) 28신과 《나가목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나가목연첩》에 6월 12일이라는 간지가 있다.

스님의 편지 세 편이 이어 도착하니 적막했던 이곳에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럽게 떨어진 것처럼 어디든지 환희의 인연이 자자합니다. 포갈과 향·등의 공양이 청정하여 가는 곳마다 자재하시니 이러한 경계에서 게 굴이나 우렁이 사는 집의 열녀업과 견주면 한갓 속된 세상의 한 경계로 삼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진목대사의 행록은 바로 후세까지 남을 옛사람의 은혜와 향기로운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진목의 행장이) 향기가 있으니 진실로 이것으로서 진목대사의 행록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었다했으니 진목대사도 기겁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후기 서문의 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정정할 것이 없을 듯 하지만 더욱 세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다시 속된 것과 바른 것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선(二禪)의 살활(殺活) 등은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리저리 얽힌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근래 어둠과 막힌 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초의 편지 3편 연이어 받은 기쁨

“하늘에서 꽃비내리듯 환희” 답신

다만 살활의 체용(體用)을 헤아림이 조금 부족합니다. 살활은 모두 용(用)일 뿐입니다. 박아는 오탁(五濁)의 악한 세상에서 쉽지 않은 선근(善根)을 지녔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바르다고 여길만하고, 서도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기질을 갖추었는데도 거들 정진하여 항상 일규를 얻고자 하니 (다른 사람이) 당해내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갔습니다. 짧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모두 뒤로 남겨두고 이만... 나수. 니원(범구경의 니원품)을 등초해 부치니 또 거두어 주시오. 여기에 큰 책상(案)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끝내 보낼 수 없으니 다시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梵槓三度 麟次而至 寂寞之濱 如天花亂墜 在在是喜歡緣藉 悉蒲藕香

‘통찰과 나눔’은 하나

《洞布不二》

“날마다 선행 합시다”

박영재 (서강대 교수·(사)선도회 지도법사)

“흔히들 간화선을 어렵다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심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 꾸준히 수행하면 그 누구라도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암실지도가 제대로 갖춰지면 간화선 만큼 빨리, 그리고 간결하게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도 없을 것입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에게 수행과 일은 둘이 아니다. 수행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수행이다. 그래서 그는 교수라는 직함 이외에 또다른 직함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 지도법사다. 1975년 선도회 종달 이희의 노사 문화로 입문 간화선을 시작했고 1987년 종달 노사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1990년 선도회 제 2대 지도법사가 된다. 교수로서도 수행자로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박영재 교수는 7월 23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후 ‘현암사’에서 나온 불교개론 시리즈를 섭렵하면서 남은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특히 《집아함경》에 담겨 있는 구절은 박 교수의 삶을 바꿔 놓게 된다.

“독화살을 맞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독화살을 뽑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왜 나를 쓰았는가 하고 고민하다 보면 독은 온몸에 퍼져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독을 먼저 치료하고 튼튼한 몸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타히기보다 제 자신이 시급히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은 저한테 절절히 와닿았어요. 이렇게 2학기가 시작되면서 서강대 불교학생회 모임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선배 한 분이 선도회를 소개해 주었죠.”

박 교수는 당시 선도회 지도법사였던 종달 이희의 노사를 만나게 된다. 종달 노사는 일반대 철학과를 수료하고 일본 일제시대 남산사화 화산 노사 문화로 출가했으며 일본 동경 도립사 주지, 해인대학(현 경남대) 교수, 동국대 강사, 월간 《법시》 편집인을 지냈다.

박 교수는 참선수행을 시작하면서 성격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이 옆에 앉으면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선수행을 1년 하고 나니 품배짱(?)이 생겼죠. 시험치기 전에 아침을 먹지 못할 정

부모님 은혜 진정으로 갚는 일인가?

박 교수는 최근 《온 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 이야기》를 냈다. 이 책은 시대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동·서양의 진솔한 ‘효’ 이야기들을 골라 엮은 책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산대사와 진목대사 서포 김만중을 비롯해 중국의 목주 선사와 일월 선사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달부드》에 담긴 효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40년 가까이 수행자와 물리학자로 살아온 그가 왜 ‘효’를 주제로 책을 낸 것일까? 박 교수는 효도와 치열한 수행은 곧 연결돼 있다고 전한다.

“효란 백행의 근원이죠. 요즘 세상에 불효자들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효와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또 저의 스승이신 종달 이희의 노사께서 월간 《법시》에 《부모은중경》을 5개월에 걸쳐 연재를 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번 책 말미에도 노사님의 옛 연재물을 재편집해 함께 실었습니다.”

박 교수의 효는 온몸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며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도 이에 대한 보답은 끝이 없죠. 온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목욕을 시켜 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교수는 이런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있다고 강조한다. “수행자라면 믿음이 없는 부모님께 믿음을 심어드리고 부모 덕한 부모님께 바르게 사시도록 일깨워 드리며 어리석은 부모님께 바르게 사시도록 일깨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길이죠. 사실 전두환 前 대통령도 자식들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그래서 부모의 부도덕함을 일깨워 줄수만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마보이에서 간화선 수행자로

천주교 집안의 2대 독자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박 교수는 수행 입문 전까지의 자신을 마마보이라고 지칭한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평소 관심분야였던 물리학도의 길을 가게 된다. 대학입학 후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했지만 월마다 시험을 치는 서강대의 학업 풍토는 예민하고 내성적이었던 박 교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고 불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방황하던 중 그는 대학 2학년 방학 때 법정 스님의 《숫타니파타》를 읽고 큰 감명을 받게 된다. 이

가톨릭 집안서 2대 독자로 자라
대학시절 종달 노사 문화로 입문
간화선으로 삶 전환점 맞아

1987년 선도회 2대 지도법사 인가
인가 받았어도 성찰 계속해야
전국 지부 18곳...수행·법사 배출

도로 예민했었는데 수행 후 이런 초조함과 예민함이 사라졌죠. 당당한 대장부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이즘 절친했던 친구 아버지의 돌연사 소식을 접하면서 생사문제가 몸서리 칠 정도로 그를 흔들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그는 수행에 매진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한 수행자로 거듭났고 수행과 학문이 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7년 종달 노사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당시 저는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소재한 이론 물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떠나기 직전인 1987년 8월말경 노사께서 설정해 놓으신 모든 간화선 수행과정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드리러 노사를 찾아갔더니 무문관료필(無門關了畢)이 담긴 인가장을 써주셨어요.”

이후 1988년 귀국해 강원대를 거쳐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이후 1990년 종달노사가 임직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박 교수는 선도회 2대 지도법사가 되면서 목동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1994년에는 서강대 신촌 제 1모임 법사도 맡게 된다. 이렇게 그는 가톨릭 예수가 설립한 서강대에서 기도실의 온돌방을 빌려 참선 모임을 가지며 참선을 알려나가기 시작한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수행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혼자서도 철저히 선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제2차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만약 수행에는 힘쓰지 않고 누구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왕청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웅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중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통보불이(洞布不二)의 삶을 주창하고 있는 선도회는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0년 정성노인의집 방문 위문품 전달식.



박영재(朴英才) 교수는 ... 1955년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거사호(居士號)는 법경(法境)이고 현호(軒號)는 무난현(無難軒). 서강대에서 입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와 미국 뉴욕 주립대(스토니 부룩)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있다. 1975년 종달 이희익 노사 문헌로 입문해 선 수행을 시작했으며, 1990년 노사 입적 후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제2대 지도법사로 일반인들을 위한 선도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의 인가를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수행력은 어느 사이엔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철저한 수행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 교수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재가자들은 통찰체함을 해볼 것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전문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洞布不二)의 삶이 실현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서명원 신부와와의 만남

박 교수는 학교내에서 교양강좌 '참선'과 자연과학부 전공 '자연과 인간' 등의 강의를 개설해 참선을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하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아주 반응이 좋아요. 수업 5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오면 수식관을 시켜요. 일단은 집중력이 좋아지죠. 수식관 요령과 성찰에 대한 목록도 시험문제로 제출하는데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시작과 마지막에 인생지도를 그려보게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난후 학생들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눔에 대한 개념, 자아성찰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죠.”

또한 박 교수의 제자인 천달 법사 서명원 신부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의대를 나온 서 신부는 1979년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성철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를 공부하게 되었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만큼 한국불교에 능통한 인물이다. 서명원 신부는 95년 박 교수가 이끄는 서강대 지도실 온돌방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참선수행을 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박 교수로부터 '천달(天達)'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2007년부터는 학생들과 재가자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간화선을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성직자의 길을 걸은 천달 서명원 신부는 2006년 박영재 교수에게 법사직을 수여받고 국내외에 참선을 알리고 있다.

선도회의 신사용서원

날마다 한가지 집착을 버리오리다 /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히오리다 /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 / 날마다 한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이렇게 박 교수가 이끄는 선도회는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9년 사단법인으로 인정받는 등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박영재 교수는 일과 수행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신사용서원을 제창했다.

수행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20~40분 정도 수행을 하고 일터에서는 하루일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좌선 수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항상 화두를 살피고 한구절의 법문을 익히며 선행을 통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통보불이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서원은 생활인들이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보살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누구나 일상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2011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통찰체현하며 죽는날까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린 박영재 교수는 100년 후를 내다 보고 법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선도회는 법사 양성 수련단체라고 과언이 아니죠. 삶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법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회의 기초를 다지고 동서양에 참선을 알려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재 교수는 대학시절 종달 이희익의 노사 문헌로 입문해 선 수행을 계속해 왔다. 대학원시절 박영재 교수(오른쪽)와 종달 노사(중간)

전법일기

아무도 궁금해 않는 이야기

며칠 전,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어설픈게 쓰인 이야기는 향신료같이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로 가득했다. 중심을 잃고 내달리는 기관차처럼 한쪽방향으로 쏘인 방송으로 인해 상황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놀란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양심고백을 하겠다는 스님이 서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심고백을 하는 모습이 마치 국민을 기만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위정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했다. 빼놓아진 생각을 가진 수행자들의 일탈행위는 우리들의 영혼마저 데마르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다.

한때 종단의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남부럽지 않은 존경과 공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편으로 이런 사람이 종단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을 어른으로 모셨던 우리에게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양심을 가장한 거짓된 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호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는 수행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다. 사회에서도 그렇기는 하지 않는다. 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물론 조직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법으로 보

폭로, 화합 깨뜨리는 어리석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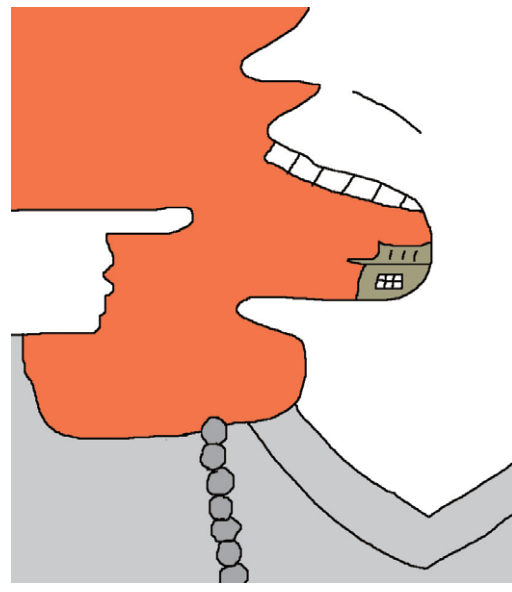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장반야야 한다. 이를 “공의제보자”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공동체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금계를 범한 사람은 율장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되고, 현행종법에 따라서 규정하면 된다. 그레도 해결되지 않을 때 대중의 힘으로 자정해 온 것이 수행공동체의 특징이다.

언론에 비친 수행자의 양심고백은 일반사회의 양심고백과 너무도 다르다. 과연 수행자에게 양심과 비양심의 양극단이 허락되는 것일까. 욕망의 양심고백을 하는 수행자는 스스로 수행자라는 것을 망각했거나 이미 수행자의 지위를 스스로 저버렸다.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거나 언론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호소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언제나 가련하다.

격정이다.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종단에서 양심을 가장한 욕망의 폭로가 빈번하게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포교현장은 깊은 시름에 젖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신도들 볼 면목이 없다. 늘 신도들과 함께 하는 소임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요즘 스님들은 왜들 그리신데요’ 라고 묻는 이에게 헛웃음만 보내게 되는 게 나쁜만은 아닐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폭로는 승단을 분열시키고, 종단을 나락으로 빠뜨린다.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래마저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내부고발인양 자행하는 폭로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破和尙僧) 어리석은 짓이다. 아니 어쩌면 승단을 깨뜨리는 일보다 더 큰 죄와 빛은 신심으로 믿고 따르며 공양하는 단월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다.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인내의 긴 한숨 얻은 수입의 일부를 정성스레 공양하는 마음, 굽은 허리로 주름진 손을 모으고 삼보전에 하염없이 절을 올리는 노보살의 그 믿음은 어찌 등질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출가자의 길을 걷는 이라면, 처음 발심해 출가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길을 나선 것만으로도 더 아파하는 중생으로 더 아파하던 불타의 자비심.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거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Advertisement for Chanduk Temple products including various lanterns and LED lights. It features images of colorful lanterns and a table with product specifications.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Table with 3 columns: 종류 (Type), 일반전구 (General Lamp), 찬덕 LED 전구 (Chanduk LED Lamp). Rows includ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효율 (Efficiency), 연간전기료 (Annual electricity fee), and 수명보장 (Warranty).

